*영어어문교육 13*권 1호 2007년 봄

영자신문을 활용한 고등학생의 영어 독해능력 향상에 관한 사례 연구

이 정 원*
(충남대학교)
이 태 옥**
(대전유성고등학교)

Lee, Jeong-Won & Lee, Tae-Ok. (2007). A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high school students' English reading ability using English newspaper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3*(1), 159-180.

The present study proposes a set of activities of teaching English reading through English newspapers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English required in authentic situation and the one taught in schools. Newspapers can provide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review what they have studied in the clas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refore, to investigate how extra-curricular activities using English newspapers have an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 three low-achieving high school students' English reading ability. The five-month study yielded that the activities using English newspapers exerted positive effects on the students' interest in English and their English scores. It suggests that using English newspapers as teaching materials may be a desirable way both to motivate students to study English harder and to develop their English reading ability.

[English reading ability/English newspaper/case study, 영어독해력/영자신문/사례 연구]

---

* 제1저자
** 제2저자

Ⅰ. 서론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자료의 약 70% 이상이 영어로 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김윤경, 1999), 영어로 읽는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EFL 상황에서는 교실에서 학습한 읽기를 교실 밖의 다양한 상황과 매체를 통해 사용할 기회가 매우 적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영어 읽기 학습 목표 역시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데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목표를 교실에 도입하기가 무척 힘들다(Li, 1998).

따라서 영어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오랜 동안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예, Day & Bamford, 1998; Grabe, 1991; Krashen, 1993; Lee, Jeong-Won & Schallert, 1997; 이소영, 2001). 특히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그 중 하나가 영자신문을 활용한 방법이다. 신문은 읽기 매체이므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독해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고, 신문 기사는 훈련된 기자가 세련된 필체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해 쓴 것이므로 교육적 가치가 높다. 또한 교과서 등 학교 수업시간에 중요하게 다루었던 구문이나 어휘를 신문기사를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자신문은 영어에 대한 문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영어 모국어 화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진정성 있는 언어(authentic language)'로 쓰여 있으므로 EFL 상황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이태옥, 2006).

그런데 중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신문 활용 교육에 관한 한 설문조사에서, NIE(Newspaper In Education)를 활용하기 가장 좋은 교과로 사회과 54.8%, 국어과 22.4%로 나타난 반면, 영어과는 1.6%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정문성, 구정화, 박미영, 2004). 이는 영어과에서 영자 신문 활용 교육(English Newspaper In Education: ENIE)에 관한 연구가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실시되지 못한 탓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생 세 명을 대상으로 계발활동 시간에 영자신문을 학습자료로 활용한 학습활동이 그들의 영어에 대한 관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영어 읽기 능력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 정성적으로(qualitatively) 탐구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신문 활용 교육의 이해

신문 활용 교육(Newspaper In Education: NIE)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문 활용 교육의 개념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신문 활용 교육은 정의를 내리는 주체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는데, 최상희(1998, p. 17)는 "학교수업(학습)에 신문을 교육매체로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의 제고를 위한 교수법이자, 새로운 신문과 교육의 동반자적 산학협동(또는 NIE적 산학협동)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신문 활용 교육을 최초로 실시한 나라는 미국이고, 1900년대 중반 이후에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신문을 교육에 활용하기 시작했다(최상희, 2003). 우리나라에서도 20세기 중반부터 신문 활용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최상희(200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문 활용 교육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학습'과 '입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활용되는 특징을 보였다. 1960년에 한국일보사에서 '소년한국일보'를 창간한 이후 각 신문사에서 경쟁적으로 '어린이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언론단체나 일부 일간신문이 NIE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후 2000년대에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NIE는 본격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도 파고들게 되었다.

2. 영자신문이 영어 독해에 미치는 영향

2000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영자신문을 학습자료로 사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자신문을 활용한 수업이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이나 흥미도 증진, 영어 쓰기 능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관한 연구도 소수 있었으나, 영자신문이 주로 읽기 매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는 독해 능력과 관련되었다.

배강환(2002)은 '의사소통능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영어 학습 차원에서 읽기 중심 교육이 그 동안 무시되어 왔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EFL 상황에서는 듣기와 말하기 교육의 실제성,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읽기를 중심으로 언어자료에 대한 듣기, 말하기, 쓰기 영역에 대한 통합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 영어 학습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읽기 자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배강환(2002)은 일선학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읽기 자료인 영어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자신문을 제시하였다. 영자신문은 기존의 영어 교과서

에 비해 훨씬 생동감 있는 내용으로 학생들의 동기와 흥미, 집중력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영어 학습뿐 아니라 타 교과 영역과도 연계될 수 있으며, 역으로 타 교과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가 영자신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영어 학력이 저조한 학생도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영자신문에 있는 각종 사진, 그림, 도표를 이용해서 기사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의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영자신문을 도입한 수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심도 있는 관찰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최경자(2002)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4개월간 교과서와 영자신문을 병행한 수업을 통하여 영자신문을 활용한 영어 읽기 능력 신장에 관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학생들은 영자신문을 학습자료로 재구성해서 사용한 경우가 교과서와 부교재만을 가지고 수업한 경우보다 영어 읽기에 대해 흥미와 자신감을 더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긴 지문으로 구성된 영자신문을 읽다 보니 영어로 된 읽을거리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답한 학생들이 많았다. 또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기사를 제시하면 어려운 단어가 많아도 자신의 언어외적 지식을 바탕으로 열심히 읽기에 집중했다고 보고했다.

김현배(2003)는 영자신문과 잡지를 고등학교 영어학습 동기유발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했는데, 교과서 보조 자료로 영자신문과 영어잡지의 짧은 글(예, 광고, 연예란, 스포츠 등)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한 경우보다 학습 흥미를 좀 더 유발할 수 있었고,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영자신문이 영어학습을 위한 동기 유발 자료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연구했다는 점에서 계발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실시한 본 연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지원한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영자신문을 교과서와 병행하여 제시하여 교과서의 단점을 보완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적으로 영자신문만을 사용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므로 영자신문이 학생들의 읽기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05년 3월에 계발활동 부서 중 하나로 영자신문반을 개설하고, 희망에 의해 가입한 11명의 학생 중 성적이 부진한 3명의 학생을 선정해서 집중적인 관찰을 통해 실시되었다. 학습 활동은 거의 매주 1회씩 실시하여 7월 중순까지 한 학기동안 진행되었다. 계발활동 시간을 이용하였으므로 수업진도에 구속 받지 않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자신문이 영어 읽기 능력이 부족한 고등학생들의 영어 읽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추론하기 위해, 교과서 등 다른 영어학습 매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영자신문만을 사용하였다. 연구 시 활용한 영자신문은 일부 활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Young Times*라는 주니어 영자신문이었다. NIE용으로 제작된 이 신문은 기사가 수준(level)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 기사마다 끝에 1(쉬운)-3(어려운)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다. 이 신문에는 기사에 대한 번역과 그에 따른 문제가 실려 있는 학습지가 제공되어 교사가 활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이 신문의 2005년 제11호부터 2005년 제25호까지를 사용하였다.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세 명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이다. 영자신문반 활동을 신청한 총 11명 중 학생들의 3월 대전시 학력진단평가 점수를 토대로 5월초에 영어숙달도가 낮은(100점 만점에 40-50점대) 3명의 사례 연구 대상 학생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다른 8명과 함께 수업에 임했지만, 연구자의 연구 대상으로서 집중적인 관찰과 면담대상이 되었다.

관찰 대상 학생 세 명은 각기 다른 반에 속해 있었는데, 선정 후 살펴보니 우연하게 우수 학생 세 명과 각각 같은 반에 속해 있었다. 이러한 조합을 짝활동(pair work)으로 응용하기도 했다.

사전설문조사 결과, A학생은 평소 영어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학교수업 이외의 영어공부에 개인적인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았다. 계발활동 부서 선택 시에도 적절한 부서를 찾지 못해서 영자신문반에 가입했으며, 3월 대전시 학력진단평가 점수는 56점이었다. B학생은 평소 영어에 보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으로, 3월 대전시 학력진단평가 점수는 48점이었다.

마지막으로 C학생은 평소 영어에 보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개인적으로 영어학습을 하고 있었는데, 3월 대전시 학력진단평가 점수는 45점이었다.

3. 학습활동 내용

학습활동 내용을 날짜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영자신문반 수업 과정안'을 제시하였고, 활동 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1) 기사를 읽고 해당되는 문제 풀기

영자신문반 수업 과정안 (1)

활동 유형	기사를 읽고 해당되는 문제 풀기	일시: 3.23/4.6/4.20
수업 목표	1. 기사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기사에 따라 제시된 문제를 풀 수 있다.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Warmup & Brainstorming - 각 기사의 헤드라인을 칠판에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킴. ① *Killing the Death Penalty* - level 1 ② *Killing People to Stop Killing People* - level 3 ③ *Arbor Day: Trees are Important* - level 1 - 헤드라인과 함께 기사 관련 그림을 제공하여 기사내용을 예측해 보게 함.	
전개	◉ Pre-teach vocabulary: 어려운 단어들을 미리 설명해 줌 ◉ 각 기사에 해당되는 한 세트의 문제를 배부하고 풀도록 함. ① Write T if the statement is true, and F if false. ② Connect the related phrases. ③ Fill in the blanks based on the article. ④ Choose a word that is the most appropriate for each sentence. ◉ 자신이 한 것과 다른 친구들이 한 것을 비교해 보도록 함.	
정리	◉ 기사의 한글 해석본을 배부하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과 비교해 보도록 함.	

연구 대상자들은 학업 성취도면에서 이질 집단이었기 때문에 수업 중 활용할 기사 선택 시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할 기사는 고루 안배하여 선택한 후, 수업 중 각 기사를 세트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배부했다.

교사가 임의로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잘 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구분해서 자료를 배부하면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자신이 원하는 기사를 스스로 선택해서 배부 받은 것을 다 하거나 그 중 하나만 해도 좋다고 안내했다.

2) 기사 내용을 한글로 요약하기

영자신문반 수업 과정안 (2)

활동 유형	기사 내용을 한글로 요약하기	일시: 5. 11.
수업 목표	1. 기사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기사내용을 한글로 요약할 수 있다.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Warmup & Brainstorming - 각 기사의 헤드라인을 칠판에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킴. ① *Roh Accents Alliance With the U.S.* - Level 1 ② *Bean Paste Curbs Obesity, Study Finds* - Level 1 ③ *Human Cloning: An International Project* - Level 2 - 헤드라인과 함께 기사 관련 그림을 제공하여 기사내용을 예측해 보게 함.	
전개	◉ Pre-teach vocabulary: 어려운 단어들을 미리 설명해 줌 ◉ 각 기사 중 하나 또는 전부를 한글로 줄거리를 요약해서 써 보도록 함. ◉ 자신이 한 것과 다른 학생들이 한 것을 비교해 보도록 함.	
정리	◉ 기사의 한글 해석본을 배부하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과 비교해 보게 함.	

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우리말로 옮기는 두 가지 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앞의 활동보다 더 어려워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Level 1'의 기사를 주로 준비하였다. 또한 기사의 난이도와 내용을 고려하였다.

3) 논쟁거리를 다룬 기사에서 쟁점을 찾고 찬성·반대 의견 찾기

이번 기사는 *The Korea Herald*에서 선택한 것으로, 헤드라인과 내용이 흥미롭게 보였지만, 어휘나 구문이 어려워보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사였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도 부담이 될 듯하여 기사는 한 가지만 준비해서 양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영자신문반 수업 과정안 (3)

활동 유형	논쟁거리를 다룬 기사에서 쟁점을 찾고, 찬성·반대 의견 찾기	일시: 5. 18.
수업 목표	1. 기사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기사에서 논쟁거리를 찾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알아본 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Warmup & Brainstorming - 기사의 헤드라인을 칠판에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킴.	
전개	◉ Pre-teach vocabulary: 어려운 단어들을 미리 설명해 줌 ◉ 위의 기사를 읽고 다음을 생각해 보도록 함 -What is the issue? -Pros & Cons ◉ 위 사안에 대한 자신의 찬성·반대 의견을 밝히도록 함. ◉ 다른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함.	
정리	◉ 교사와 함께 정리해 봄.	

4) 영문기사를 한글로 번역하기

영자신문반 수업 과정안 (4)

활동 유형	영문기사를 한글로 번역하기	일시	5. 25.
수업 목표	1. 기사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기사를 한글로 번역할 수 있다.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Warmup & Brainstorming - 기사의 헤드라인을 칠판에 제시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킴. ① *Metal Detectors to Be Used to Prevent Exam Cheating* - Level 1 ② *Seoul Motor Show to Be Biggest Ever* - Level 2 - 기사에 해당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헤드라인과 그림을 통해 기사내용을 예측하게 함.		
전개	◉ Pre-teach vocabulary: 어려운 단어들을 미리 설명해 줌. ◉ 학생들에게 기사를 배부하고 읽어보도록 함. ◉ 영문기사를 한 문장씩 한글로 번역하도록 함. ◉ 활동 시 잘 모르는 것을 짝과 협동하여 활동하도록 함.		
정리	◉ 기사의 한글 해석본을 배부하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과 비교해 보도록 함.		

이번 활동부터 짝활동을 적용해 보았다. 반별로 함께 앉도록 했고, 이를 통해 부진한 관찰 대상 학생의 짝활동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나경희와 이선, 2005).

영자신문반 수업 과정안 (5)

활동 유형	헤드라인과 사진을 보고 기사에 나온 단어 추측해 보기, 틀린 해석 찾기	일시: 6. 1
수업 목표	1. 헤드라인과 사진만 보고 기사에 나온 단어를 예측할 수 있다. 2. 기사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3. 기사와 번역본을 보고 해석이 잘못된 것을 찾을 수 있다.	
단계	활동 내용	
도입	◉ Warmup & Brainstorming - 헤드라인을 칠판에 쓰고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킴. ① *Movie Star Calls for International Help* - Level 1 ② *Have You Ever Wondered...* - Level 1	
전개	◉ 학생들에게 헤드라인과 영화배우 Angelina Jolie의 사진이 있는 활동지를 배부하고, 기사에 나왔을 것 같은 단어를 5개 이상 추측해서 써보도록 함. ◉ 기사를 나눠주고 자신이 추측한 단어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고 그 단어에 동그라미로 표시하도록 시킴. ◉ 자신의 추측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기사를 읽은 후 번역해 보도록 함.	
정리	◉ 기사의 한글 해석본을 배부하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과 비교해 보도록 함. ◉ 과제 제시: 당근섭취가 시력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Q&A 기사와 번역본을 함께 배부한 후 틀린 해석을 찾아보도록 함.	

5) 헤드라인과 사진을 보고 기사에 나온 단어 추측하기, 틀린 해석 찾기

이 활동에서는 헤드라인과 사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의 시선을 끌만큼 매력적이거나 그들의 관심 분야를 다룬 헤드라인이나 사진이 있어야 한다. 이 활동을 준비하면서 학습지에 있는 해석 중 틀린 것을 종종 발견했다. 그래서 이를 틀린 해석 찾는 활동으로 응용해서 과제로 제시했다.

4. 자료 수집 방법

이번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은 학습활동 전·후의 설문조사와 수업시간 중 관찰, 사례연구 대상자와의 면담, 그리고 성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성취도 평가이다.

1) 설문 조사

사례 연구 대상 학생 세 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월에 실시된 사전설문은 총 20문항으로, 처음 10문항은 영어학습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것이고, 나머지 10문항은 영자신문과 관련된 것이었다. 7월에 실시된 사후설문은 10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사전설문에서 물은 영어학습 관련 내용은 중복해서 묻지 않고, 주로 영자신문반에서 활동한 내용에 관한 것으로만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 대상 학생의 변화는 물론이고 영자신문반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성취도 평가

본 연구의 성과를 알아보는 도구로는 사전검사로서 2005년 3월 30일에 실시한 '대전시 학력진단평가'와 사후검사로서 2005년 6월 9일에 실시한 '2005학년도 전국연합 학력평가' 결과를 사용하였다.[1] 이 평가는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알아보는 시험으로 교육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시험이다. 문제 유형은 '대학입학 수학능력 시험'과 같으며,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만점은 100점이다.

3) 관찰법

주로 계발활동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과제를 해결하는 양상과 어떤 과제를 어려워하는지, 어떤 과제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지를 관찰하였다. 개인별 관찰 시간을 따로 정하거나 관찰 항목을 사전에 계획하지는 않았고, 주로 수업 중에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관찰해서 관찰일지에 기록했다. 또한 학생들의 개별 활동은 물론이고 학생 상호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관찰

---

1) 이 연구의 실험은 3월에서 7월 중반까지 한 학기동안 실시되었지만, 학생들의 독해능력 향상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는 3월 30일과 6월 9일에 대전 지역 고등학교에서 실시된 표준화 검사를 이용하였다.

할 수 있었다.

4) 면담법

면담은 수업시간 중이나 수업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활동에 대한 느낌이나 어려운 점 등에 관해 수시로 실시했고, 시간을 따로 내서 집중 면담을 실시하기도 했다. A학생의 경우는 사전설문 분석 결과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서 가장 먼저 관찰 대상 학생으로 선정되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약 40분에 걸친 1차 집중 면담과 6월경 약 40분에 이르는 2차 집중 면담을 실시하였다. 학기 초 면담에서는 주로 평소 영어에 대한 관심과 영어라는 과목에 대한 생각, 자신의 영어 학습방법, 영어에 대한 자신감 등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질문하였다. 6월 2차 면담에서는 영자신문반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B, C학생의 경우에는 수업 중 관찰과 수시 면담 이외에 6월에 약 30-40분에 걸쳐서 영자신문반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느낌과 영어에 대한 평소 생각에 대해서 각각 1회씩 집중 면담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논의

읽기 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세 학생은 영자신문반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A 학생

A학생은 관찰대상 학생들 중 가장 특이한 사항을 많이 지닌 학생이었다. 사전설문 조사에서 평소 영어에 관심이 '별로 없음'에 응답한 유일한 학생이었고 가입동기도 '특별히 관심 가는 다른 부서를 찾지 못해서'였다. 그래서 사전설문 분석 후 가장 먼저 집중 관찰 대상 학생으로 선정하였고 2회에 걸쳐서 집중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학생은 학교수업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영어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고, 3월 대전시 학력진단평가 성적은 56점이었다. 영어공부를 하는 목적은 '수능 및 학교시험대비'를 위해서였고, 영자신문반 활동이 영어공부에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차 집중 면담 결과 평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영자신문반 활동 시에도 다른 학생들은 다 잘하는데 자신만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먼저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긍적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었다. 성격은 차분하고 다소 내성적인 듯 보였으며 대화를 진행해 나가자 영어학습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영어공부에 대해 고민했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학습활동 측면에서 볼 때, '기사를 읽고 문제 풀기' 활동은 T/F 질문이나 문장 연결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별다른 사항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기사내용을 한글로 요약하기' 활동의 경우에는 줄거리를 거의 한 줄도 쓰지 못하였다. 나누어준 활동지에 낙서를 하고 몇 단어에만 뜻을 적어놓은 것으로 보아 이 활동이 상당히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논쟁거리를 다룬 기사에서 쟁점을 찾고 찬성·반대 의견 찾기' 활동에서는 주변의 우수 학생들과 함께 과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영문기사를 한글로 번역하기' 활동에서는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서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였다. 두 개의 기사가 과제로 주어졌는데 그 중 첫 번째 기사만 했다. '*metal detectors*'를 '광물 탐지기'로 번역하는 등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맥락이 충분히 통하는 정도로 해석했다. 중요한 것은 혼자 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점이다. '헤드라인과 사진을 보고 기사에 나온 단어 추측하기' 활동에서 A학생이 추측한 단어는 *help, world, global, disaster, severe, court, people* 등이었다. 기사의 번역 내용을 볼 때, 이 학생이 전체 글을 이해했음을 알 수 있었다.

2차 면담에서는 1차 면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영어공부에 자신감이 없었지만 영자신문반 활동을 통해 영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전에는 전혀 접한 적이 없었던 '아리랑 TV,' 'Discovery 채널' 등의 영어 매체를 접해보았다는 점에서 볼 때, 영자신문반 활동이 이 학생에게 큰 성과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자신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선호했고, 따라서 짝활동에서도 잘하는 학생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응답을 한 것을 볼 때, 짝활동을 적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짝활동의 효용성을 강조한 연구와 배치되는 결과이다 (Doughty & Pica, 1986; Johnson, 1995).

이 학생은 사후설문에서 영자신문반 활동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영자신문반 가입 후 영어에 대한 관심이 '약간 증가'하였고, 영자신문반 활동이 영어공부에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교과서 이외의 글을 접했다는 측면'에 의의를 두고 있었으며 다른 친구들에게 가입을 권유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보통'이라고 대답했다. 기사를 보았을 때 사진에 가장 먼저 시선이 갔으며 '주 1회 정기적으로 수업시간에 영자신문 기사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거의 하지 않던 공부를 1주일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적었다.

성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A학생은 모의고사 성적이 3월에 56점(83등)에서 6월에 65점(57등)으로 9점이 향상되었으며 계열석차도 26등이나 상승하여서 의미 있는 결

과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A학생은 영자신문반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겪은 학생인 것 같다. 물론 학생의 위와 같은 영어성적 향상의 원인이 영자신문반 활동 때문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영어에 관심이 별로 없었고, 가고 싶은 다른 부서가 없어서 지원하기는 했지만, 영자신문반 가입 후 영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교과서 이외의 영어로 된 매체를 접해 보았다. 특히 '거의 하지 않던 공부를 적어도 1주일에 한 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사후설문의 응답에서 나타나듯이 영어공부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다는 데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B 학생

사전설문으로 본 B학생의 특징으로는 평소 영어에 '보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수능 및 학교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어공부를 하며, 평소 영어를 '별로 못한다'고 응답했다. 자신의 모의고사 점수를 묻는 문항에 '70-60'이라고 응답했으나 실제 점수는 48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학교수업 이외에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영어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영어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자신문반에 가입했으며, 영자신문반 활동이 영어공부에 '대체로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학습활동 측면에서 볼 때, '기사내용을 한글로 요약하기' 활동에서는 세 가지 기사를 모두 다루었으나, 기사내용을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정도로만 기술한 것을 볼 때 이 활동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었다. '논쟁거리를 다룬 기사에서 쟁점을 찾고 찬성·반대 의견 찾기' 활동도 상당히 어려워했는데, 이 기사는 *The Korea Herald*에서 발췌한 기사였기 때문인 것 같다. 쟁점을 찾는 질문에 *Hugging ban sparks dispute at U.S. school*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았다. 헤드라인이 기사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말로 변형시키거나 다른 어구들은 전혀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활동이 자신의 능력에 약간 벅찼던 것 같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찾는 질문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열거하였을 뿐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적지 않았다. '영문기사를 한글로 번역하기' 활동에서는 주어진 두 개의 기사 중 첫 번째 기사만 번역을 했다. '기사내용을 한글로 요약하기' 활동과 달리 전체 문장을 한글로 모두 번역해야 하는 활동이었는데 줄거리만을 적었다. '헤드라인과 사진을 보고 기사에 나온 단어 추측하기' 활동에서 기사에 나왔을 것 같은 단어로 *Angelina Jolie, it, Unicef, orphan,*

*Hollywood, world*를 나열했다.

집중 면담을 통해서 이 학생이 영자신문반 활동을 재미있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두드러지게 영어가 향상되지는 않았지만 흥미를 느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휘 등이 나왔을 때 이 학생이 사용한 전략(해석과 영문기사를 함께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의 뜻을 추측함)은 독특하면서도 실용적으로 보인다.

사후설문 결과 B학생은 영자신문반 활동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영자신문반 가입 후 영어에 대한 관심이 '약간 증가'하였고, '독해력, 문화 등 배경지식, 교과서 이외의 글을 접했다는 면'에서 영어공부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재미있는 기사거리를 영어로 접해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서' 영자신문반 가입을 다른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영자신문반 활동을 통해서 영어공부에 대한 동기와 흥미가 높아졌음을 엿볼 수 있었다. 기사 중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사진'이라고 응답해서 시각자료가 학습도구로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Hanson-Smith, 2001). '흥미 있는 기사가 나올 때 비정기적으로' 정규 수업에 영자신문 기사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여겼고, '기사 독해'가 가장 좋았다고 응답했다. '내용이 재미있으면 독해하는 데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는 지문의 내용이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최경자(2002)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지문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가장 싫었던 활동으로는 '기사를 읽고 해당되는 문제 풀기'였는데 '딱딱한 느낌'이라서 싫었다고 답했다.

B학생은 3월 대전시 학력진단평가에서 48점(110등)을 얻었고, 6월 학력평가에서는 49점(105등)을 얻었다. 점수로 볼 때 사실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비록 성적 면에서 두드러지는 향상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영자신문반 활동을 통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다. 특히, 영자신문반 활동이 재미있었다고 진술해서 긍정적인 동기가 촉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헤드라인과 사진을 보고 기사에 나온 단어 추측하기' 활동을 통해서 영어공부를 해야겠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응답은 수업 시 영자신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3. C 학생

A, B학생의 경우 영자신문반 활동이 전반적인 영어학습이나 영어에 대한 관심도 증가, 그리고 동기 부여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C학생은 영자신문반 활동을 통해서 정의적인 면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교수법이든지 모든 학생에게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성적 면에 있어서는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자기 자신은 별 효과가 없다고 느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적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이다.

이 학생의 평소 영어에 대한 관심은 '보통'이었고, '장래취업과 사회생활을 대비'하기 위하여 영어를 공부하며, 평소 영어를 '별로 못한다'고 답하였다. 자신의 모의고사 점수를 80-70에 응답하였으나 실제점수는 45점이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 영자신문반이라고 하니까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본인도 생각했던 것 같다. 학교수업 이외에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영어공부를 하며, 자신의 부족한 분야에 '독해, 작문, 듣기, 말하기, 문법' 5개 영역에 모두 표시하여서 영어학습 전반에 걸쳐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교재 이외에 '영어 잡지'를 접해 본 적이 있고, '영어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자신문반에 가입했으며, 영자신문반 활동이 영어공부에 '대체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하고 있었다.

학습활동 측면에서 볼 때, '기사내용을 한글로 요약하기' 활동을 할 때에는 기사내용을 한 두 줄 정도로만 표현한 것으로 보아 활동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논쟁거리를 다룬 기사에서 쟁점을 찾고 찬성·반대 의견 찾기' 활동을 할 때에는 적극적이지 않아 보였다. 쟁점을 찾는 곳에 헤드라인을 영어로 그대로 옮겨 적었을 뿐 찬성·반대 의견을 찾는 문제는 빈칸으로 남겨 두었다. '영문기사를 한글로 번역하기' 활동은 대체적으로 잘 했으며, 이 학생도 B학생처럼 두 개의 기사 중 첫 번째 기사만 시도하였다. '헤드라인과 사진을 보고 기사에 나온 단어 추측하기' 활동에서 이 학생이 추측한 단어는 *ask, request, found, UN, organization, tomb raider, Angelina Jolie*였다. 모르는 단어를 찾아가며 해석한 흔적이 보였고 대체로 잘 했다.

사후설문 결과 이 학생은 영자신문반 활동에 '보통'으로 만족했으며, 영자신문반 가입 후 영어에 대한 관심이 '별 차이 없음'으로 응답해서 A, B학생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영자신문반 활동이 영어공부에 '조금 도움'이 되었다고 했으며, '교과서 이외의 글을 접했다는 면'에 의의를 두었으나, 영자신문반 가입을 다른 친구들에게 '권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 '한 시간이나마 즐겼으면 한다'는 이유를 들었고, 영자신문의 기사를 정규 수업에 도입하는 것도 반대했다. 이런 응답으로 보아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자신에게 조금 부담스러웠고 벅찼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기사 중 '사진'이 가장 먼저 시선을 끌었으며 가장 좋았던 것은 '그림이 포함된 기사'였고, 양적으로 많았던 '기사를 읽고 해당되는 문제 풀기' 활동을 싫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C학생은 영어공부에 대한 흥미나 동기면에 있어서는 영자신문반에 가입하기 전

과 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영어성적에 있어서는 가장 큰 향상이 있었다. 3월 대전시 학력진단평가 점수가 45점 (120등)이었는데, 6월 학력평가 점수는 61점(72등)이었다. 원점수가 16점 상승하였고 석차는 무려 48등이나 올라서 영자신문반에 가입한 11명의 학생 중 영어성적이 가장 많이 올랐다. 집중 면담 시 "1학년 모의고사 문제집과 단어장을 통해서 영어공부를 시작"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수준에 맞는 것부터 공부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정리하면, C학생은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영어에 대한 관심 증가나 영어공부에 대한 동기 부여 면에 있어서는 큰 효과가 없었던 것 같다. 활동을 하면서 재미도 있었지만, 학습면에서 부담을 많이 느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적은 크게 올라서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중에도 영자신문반 활동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이 학생은 활동 중에 다소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담을 느꼈다는 것은 자신이 활동에 의지를 가지고 진지하게 임했다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 이 학생이 느꼈던 부담감은 Scovel(1978)이 언급하였던 '촉진 불안(facilitating anxiety)'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Ⅴ. 결론

본 연구는 2005년 3월초부터 7월 중순까지 한 학기동안 진행되었고, 11명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계발활동 부서를 통해 연구되었다. 11명 중 설문조사와 학력평가를 기준으로 3명의 사례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설문조사, 면담, 관찰을 통하여 영자신문을 활용한 여러 가지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영어독해능력 신장과 정의적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영자신문을 활용한 계발활동 이후 연구 대상자의 영어점수는 모두 향상되었고, 그 중 한 학생(C학생)의 점수는 두드러지게 향상되었다. 영어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도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영어공부에 대한 동기도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구 대상자 중 영자신문반에 가입하기 전에는 교재 이외의 영어 매체를 전혀 접해본 적이 없었던 학생이 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영어 TV 등을 시청해서 영어공부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영자신문을 활용한 계발활동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영어독해능력 향상과 영어에 대한 흥미나 관심의 증가 면에서 유의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이러한 유형의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줄 수 있겠다. A학생은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B학생이나 C학생보다 객관적으로 영어 성적이 더 우수했으나,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은 오히려 다른 학생

들보다 결여되어 있었다. 면담 내용에서도 자신감 부족을 발견할 수 있었다. A학생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만 한정하지 말고 관심이 가는 내용을 영자신문,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지시키면서 공부하도록 독려하면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B학생은 독해를 할 때 지문이 재미있을 경우,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도 덜 부담스러워 한 것으로 보아,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를 영어로 공부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요즘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 등을 보면 용어가 영어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게임을 하면서 영어로 된 용어들이 게임 밖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본다든가, 게임을 소개하는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C학생은 Deci(1975)가 언급하였던 영어 공부에 대한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가 부여된다면 공부하는데 능률이 더 오를 것 같다. 이를 위해서 영어공부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면서 주변에서 영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외국인 친구와 전자우편을 주고받는다든가, 자신이 좋아하는 외국 배우들에 관한 기사를 관심을 가지고 읽어본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영자신문을 수업도구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 수업 전 활동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영자신문과 함께 제공되는 NIE용 활동지를 사용하면 교사 입장에서는 손쉽고 시간과 노력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은 활동지를 통한 활동보다 교사가 직접 개발하여 준비한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 둘째, 수업에 도입할 기사를 선택할 때는 학생들의 수준과 기사내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사내용은 교육적이어야 한다. 기사 내용이 흥미로우면 다소 어렵더라도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데 높은 동기를 보일 것이다(Gardner & Lambert, 1972). 셋째, 정규수업과 연계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영자신문을 통해서 환기시킬 수 있고, 수업시간에 배운 것들이 신문에서 활용되는 것을 보면서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윤경. (역). (1999). *영어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김현배. (2003). *영자신문을 고등학교 영어학습 동기유발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나경희, 이선. (2004). 읽기 그룹활동에서 그룹원간의 역할 활동과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영어어문교육, 10*(1), 77-106.

배강환. (2002). *EFL환경에서 읽기를 중심으로 한 영어학습 향상 방안: 영자신문 활용을 중심으로*. 한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소영. (2001). 고등학교의 영어 읽기 지도 현황. *영어교육, 56*(4), 243-263.

이태옥. (2006). *주니어 영자신문을 활용한 계발활동이 영어독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문성, 구정화, 박미영. (2004). *학교 NIE 알아보기*. 한국신문협회.

최경자. (2002). *영어 읽기 능력 신장을 위한 영자신문 활용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 논문.

최상희. (1998). *사회과 교육에서의 신문 활용 방안*.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상희. (2003). *NIE 이해와 활용*.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Day, R. R., & Bamford, J. (1998). *Extensive reading in the second language classro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eci, E. L. (1975). *Intrinsic motivation*. New York: Plenum Press.

Doughty, C., & Pica, T. (1986). 'Information gap' tasks: Do they facilitate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SOL Quarterly, 20*, 305-325.

Gardner, R. C., & Lambert, W. E. (1972). *Attitudes and motivation second language learning*. Rowley, MA: Newbury House.

Grabe, W. (1991). Current developments in second language reading research. *TESOL Quarterly, 25*(3), 375-406.

Hanson-Smith, E. (2001).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In R. Carter & D. Nunan (Eds.), *The Cambridge guide to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pp. 107-11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ohnson, K. (1995). *Understanding communication in second language classroom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Krashen, S. D. (1993). *The power of reading: Insights from the research*. Englewood, CO: Libraries Unlimited.

Lee, Jeong-Won, & Schallert, D. L. (1997).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L2 language proficiency and L1 reading ability to L2 reading performance: A test of the threshold hypothesis in an EFL context. *TESOL Quarterly, 31*(4), 713-739.

Li, D. (1998). It's always more difficult than you plan and imagine: Perceived

difficulties in introducing the communicative approach in South Korea. *TESOL Quarterly*, *32*(4), 677-703.

Scovel, T. (1978). The effect of affect on foreign language learning: Review of the anxiety research. *Language Learning, 28*(1), 129-142.

부 록

1. 사전 설문지

1. 평소 영어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많음 ② 많음 ③ 보통 ④ 별로 없음 ⑤ 전혀 없음
2. 영어공부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영어권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② 국제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③ 장래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대비해서
   ④ 학과목중의 하나이므로
   ⑤ 수능 및 학교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⑥ 기타 _____
3. 평소 자신의 영어실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① 아주 잘하는 편 ② 잘하는 편 ③ 보통
   ④ 별로 못하는 편 ⑤ 아주 못하는 편
4. 대략적인 자신의 영어 모의고사 점수는 다음 중 어느 곳에 해당됩니까?
   ① 90점 이상 ② 90-80 ③ 80-70 ④ 70-60 ⑤ 60점 미만
5. 평소에 어떤 방법으로 영어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학교수업 ② 학원수강 ③ 과외교습 ④교육방송 ⑤ 인터넷 등 대중매체
   ⑥ 기타 _____
6. 영어공부 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독해 ② 작문 ③ 듣기 ④ 말하기 ⑤ 문법
7. 자신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독해 ② 작문 ③ 듣기 ④ 말하기 ⑤ 문법
8. 자신의 영어실력 중 가장 향상시키기 바라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독해 ② 작문 ③ 듣기 ④ 말하기 ⑤ 문법
9. 위 8번에서 선택한 분야를 가장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과서 등 교재공부를 통해서 ②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통해서
③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④ 자습
⑤ 기타 _____

10. 수업시간 외에 주변에서 모르는 영어단어나 구문을 보거나 들었을 때 사전 등을 찾아보는 편입니까?
① 항상 찾아본다 ② 자주 찾아본다 ③ 가끔 찾아본다
④ 별로 찾아보지 않는다 ⑤ 전혀 찾아보지 않는다

11. 교재 이외에 영어로 된 매체를 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2.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케이블 방송 등 TV ② 라디오 ③ 영시·영소설 등 영문학 작품
④ 영화 포스터 등 각종 광고물 ⑤ 영자신문 ⑥ 인터넷 사이트
⑦ 기타 _____

13. 평소에 신문을 읽으십니까? (우리나라 신문)
① 매일 읽음 ② 자주 읽음 ③ 가끔 읽음
④ 별로 읽지 않음 ⑤ 전혀 읽지 않음

14. 그 동안 영자신문을 한번이라도 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터넷 포함)
① 있다. ② 없다.

15. 있었다면 그 영자신문의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_____

16. 영자신문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읽었습니까?
① 읽어본 적 없음 ② 죽 지나가면서 제목만 봄
③ 관심 있는 기사를 발견했으나 끝까지 읽지 못함
④ 관심 있는 기사를 끝까지 읽어봄 ⑤ 기타 _____

17. 영자신문을 읽을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단어 ② 관용어구 ③ 배경지식 ④ 긴 지문
⑤ 교과서와 다른 지문구성(생략, 도치구문 등) ⑤ 기타 _____

18. '영자신문반'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영자신문을 읽어보고 싶어서 ② 영어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③ 친구의 권유로 ④ 관심이 가는 다른 부서를 찾지 못해서
⑤ 기타 _____

19. '영자신문반' 활동이 영어공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많이 도움이 됨 ② 대체로 많이 도움이 됨 ③ 조금 도움이 됨
④ 거의 도움이 안됨 ⑤ 전혀 도움이 안됨
20. '영자신문반'에서 기대하는 활동 및 희망하는 사항을 적어주세요.

2. 사후 설문지

1. 영자신문반 활동이 가입 전 기대했던 것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① 매우 만족함 ② 만족함 ③ 보통 ④ 별로 만족 못함 ⑤ 전혀 만족 못함
2. 영자신문반 가입 후 영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까?
① 매우 증가함 ② 약간 증가함 ③ 별 차이 없음
④ 약간 감소함 ⑤ 매우 감소함
3. 영자신문반 활동이 영어공부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많이 도움 됨 ② 대체로 많이 도움 됨 ③ 약간 도움 됨
④ 거의 도움 안 됨 ⑤ 전혀 도움 안 됨
4. 도움이 되었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3번 문항에서 ④, ⑤번에 체크한 사람은 대답하지 말고, **해당되는 곳에 모두 체크**)
① 어휘 ② 독해력 ③ 문화 등 배경지식
④ 교과서 이외의 글을 접했다는 측면 ⑤ 기타: _____
5. 영자신문반을 후배나 친구들에게 추천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① 적극 추천함 ② 추천함 ③ 보통 ④ 반대함 ⑤ 적극 반대함
이유: _____
6. 기사를 접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시선을 끕니까?
① 사진 ② 헤드라인 ③ 기사 내용 ④ 기타 _____
7. 정규 수업시간에 영자신문의 기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좋음 ② 좋지 않음
8. 좋다면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① 주1회 등 정기적으로
②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비정기적으로
③ 흥미를 끄는 기사가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④ 기타: _____
9. 여러 가지 활동 중 가장 좋았던 것과 그 이유를 간단히 써 주세요.
10. 여러 가지 활동 중 가장 싫었던 것과 그 이유를 간단히 써 주세요.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이정원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305-764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Tel.: (042) 821-5333
Email: jeongwon@cnu.ac.kr

이태옥
대전유성고등학교
305-801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613-9
Tel.: (042) 824-0266
Email: 2taeok@hanmail.net

Received in Jan. 2007
Reviewed by Feb. 2007
Revised version received in Mar. 2007